

#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5월 / 통권 495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證道歌 (증도가)

요 요 건 무 일 물  
了了見 無一物이여  
여 무 인 혜 역 무 불  
亦無人兮亦無佛이라

밝게 보고 밝게 보아 한 물건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더라.

대 천 사 계 해 중 구  
大千沙界海中漚요  
일 체 성 현 여 건 불  
一切聖賢如電拂이라

삼천대천세계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요  
일체의 성현들도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이로다.

##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별나라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오직여래 (吾直如來) / 무경스님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12

알림마당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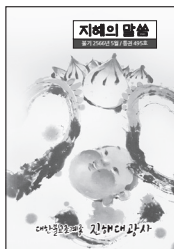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연등접수 안내

백중기도 접수 안내

진해수석인 합동 수석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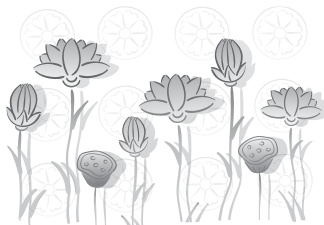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별나라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트라피스트 1'라는 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meti)메티인터네셔널이 4월 13일 영국 남부 무선 통신 시설인 군히리어스스테이션을 빌어서 전파를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트라피스트 1'은 7개의 행성을데리고 있으며 우리의 태양보다 덜 뜨겁고 7개의 행성 중 3개 정도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온화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라고 한다.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각종 추측이 만들어졌

고 많은 설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우주의 미지 세상을 향해 전파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번번히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전파가 어떤 생체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답을 보내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전파의 왕복 거리와 소요 시간이 답을 불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실제 그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달릴 때 39광년 거리다. 광속으로 달려도 가는데만 39년이 걸리는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산하면 최소 78년이 걸린다.

보낸 사람이 살아서 답을 받아볼 수 없는 멀고 먼 거리다.

다른 천체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좋은 지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만 기대할 수 있느냐는 염려다.

혹시 그들이 우리보다 발전된 가공의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 저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구를 식민지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불가의 우주관은 저 넓은 우주에 한없이 많은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마다 중생이 있으며 부처님이 항상 법을 설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설해지고 있다.

그 기초적 표현으로 동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서 한 나라가 있는데 약사부처님이 계셔서 아픈 중생을 늘 보살피신다. 했고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면 아미타께서 다스리시는 극락이 있는데 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다. 했다. 이런 세상은 사방팔방으로 존재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수효가 불어나서 우주에 가득히 존재하는데 황하강의 모래수를 천배 합친 수가 존재한다고 경에 설명되어 있다.

트라피스트 1이라는 별에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을지는 과학이 더 발전하고 기술이 더 발달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아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연구에 불과하고 현황 파악에 불과하다.

사람을 싣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다. 설사 사람을 싣고가는 여행이 가능하다 해도 그 오랜 기간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과연 생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숙제다.

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우주 무한 공간의 다양한 세계  
를 여행하며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좋은 깨달음 얻는 기회  
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 오직여래 (吾直如來)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신일이다. 정확히는 고타마 싯타르타의 생신날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기원전 563년경 샤카왕국의 왕 고타마 슛도다나의 아들로 태어난 싯타르타는 어느날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구경하게 된다. 명에를 씌운 소가 앞으로 나아가자 농부는 쟁기질에 힘을 주었고 뒤집힌 흙속에는 벌레가 나왔다. 어디선가 날아온 새 한마리가 벌레를 잡아 먹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당시 12살이었던 싯타르타는 이때 인생의 허무함과 윤회의 괴로움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한 명상을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29살이 되서였다.

고대 인도 수행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있을 아프만(영원불멸한 자아)을 찾기 위해 수행했다. 이는 한



인간이 불멸의 신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왕자의 신분을 버린 싯타르타는 우선 자신의 스승이 되어줄 수行者부터 찾아 나선다. 아프만을 찾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품있고 좋은 혈통을 가졌고 벼락같은 통찰력 갖춘 싯타르타는 여러 스승들이 가르친 아프만을 경이로운 속도로 모두 깨우쳤다.

싯타르타는 더이상 그들에게 배울 것이 남아 있지 않았고, 그들도 더이상 가르칠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스승들은 싯타르타의 깨달음을 인정했다. 뿐만아니라 동등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함께 교단을 이끌어 가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싯타르타는 스승들이 말한 아프만에서 불완전함을 보았기에 전혀 만족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서 해답을 찾지 못하니 결국 스스로 찾아야 했다.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 앉은 싯타르타는 다시 내면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미지의 세계를 홀로 떠나려니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원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극복했다.

음력 12월 8일 별이 밝게 빛나는 새벽, 원하는 해답을 찾았다. 인생의 허무함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지혜는 '아프만(영원불멸한 자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다. 모든 괴로움은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데서 발생한다고 알게 되었다.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샤카(석가)왕국 출신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 성자(모니)



가 되었다고 해서 '석가모니'라고 불렀다.

불교에서 부처님이란 호칭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절대신의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

언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다. 수메다라는 이름의 젊은 수행자로 살았을 때 일이다. 당시 수메다가 살았던 세상에는 연등부처님께서 출현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을 한번이라도 뵙고 축복 받기를 희망했다. 수메다도 그 중 한명이었다.

하루는 수메다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연등부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돌았다. 도시 전체는 곧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도시에 있는 모든 꽃들이 순식간에 다 팔려 나갔다. 사람들이 연등부처님께 드릴 꽃을 앞다투어 사갔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연등 부처님과 스님들의 방문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흥겨운 노래와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이런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에서 수메다는 비싼 값을 주고 겨우 푸른 연꽃 다섯송이를 구할 수 있었다. 연등 부처님께서 도시에 방문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애써 구한 연꽃도 먼 발치에 던져 공양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수메다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저도 당신처럼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수메다가 던진 푸른 연꽃 다섯 송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등 부처님 머리 위 공중에서 그대로 떠 있는 것이었다. 순간 주변에는 정적이 흘렀고, 연등 부처님은 미소를 지은채 수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수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수기(受記:예언)를 하셨다.

'그대는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오늘날 불자님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추어 연꽃등을 다는 배경에도, 이처럼 연등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인연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월초과일에는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꽃등을 달며 부처님께 '저도 당신처럼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하는 큰 소원을 한번 빌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다.



## ◎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 5월 1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8일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 ◇ 5월 15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1일 : 산사음악회 오후 6시 대웅전 앞마당
  - ◇ 5월 30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부처님오신날 연등접수

- 대웅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 / 영가등 5만원

## 백중기도 접수

- 입재 :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초재 : 7월 1일                    ■ 2재 : 7월 8일
- 3재 : 7월 15일                   ■ 4재 : 7월 22일
- 5재 : 7월 29일                   ■ 6재 : 8월 5일
- 회향 : 8월 12일 오전 10시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 대광후원회

(2022.3.18~2022.4.18)

황두관 10,000	정진이 10,000	변지오 20,000	김지현 50,000
김경남 20,000	정연수 30,000	정대식 30,000	조한분 50,000
홍승운 20,000	김병문 20,000	박정진 10,000	원광한의원 100,000
변창인 20,000	박미애 10,000	강성진 10,000	박진호 100,000
오현철 20,000	이인숙 20,000	배수진 30,000	(주)카텍 30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0,000원 / 최덕희 50,000 / 정창운 50,000

### ♥ 지혜의말씀 후원

양재봉 10,000원 / 임근철 10,000원

## 진해수석인 합동 수석전시회

- 일시 : 2022년 5월 7일 ~ 8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대광불교대학 대강의실

###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 佛紀 2566年 부처님오신날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모든 신도님들과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연등을 달며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봉축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연등을 밝혀 가족의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많은 복덕과  
지혜의 인연을 지어 무량공덕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봉축 법회 안내

- 일 시 : 5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대웅전 앞마당
- 일 정 : 1부 오전 10시 : 사시불공  
2부 오전 11시 : 봉축법회  
3부 오후 2시 : 시라다도회 행다시연
- 전 화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비빔밥 대신 떡, 물을 드립니다.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